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May 2005

New Releases



8.557428

브람스 교향곡 1번, 대학축전서곡, 비극적서곡 마린 알소프(지휘), 런던 필하모닉

〈가디언〉이달의 음반. 〈그라모폰〉2005년 3월호 커버스토리. 〈클래식스투데이〉 9/9. “위대한 브람스 해석가들이 드문 이 시대에 알소프는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하여 자신의 첫발을 내딛었다.” (가디언) “담대하고도 풍성한 영감이 깃든 브람스”(그라모폰)



8.557448-49(2CD)

JS 바흐 미사 B단조 BWV232
임선혜(소프라노), 안 할렌베르크(알토), 마쿠스 셰페(테너), 드레스덴 체임버 콰이어, 헬무트 윌라-브렐(지휘), 필름 체임버 오케스트라
(클래식스투데이) 9/9. “정적으로 놀라운 레코딩” (클래식스투데이). 유럽 고음악계의 새로운 별, 한국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임선혜의 해맑은 음성을 이 음반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할렌베르크, 셰퍼 등 바로크성악계의 스타들이 참여하였다. 바흐의 수많은 기악곡들에서 호평을 얻었던 윌라-브렐이 바흐의 위대한 종교합창곡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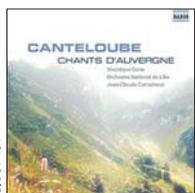
8.557380-8(2CD)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임선혜(소프라노), 안 코보프(테너), 한노 윌라-브라흐만(베이스), 보컬 앙상블 필름,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지휘), 카펠라 아우구스티나
(클래식스투데이) 10/10. 〈그라모폰〉Editor’s Choice(2005/06). “내가 듣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연주, 하이든의 창조적 영감이 매순간 드러난다.” (클래식스투데이). 헨델의 메시아의 강렬한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하이든의 걸작 오라토리오.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프라노 임선혜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크리스토퍼의 동생인 안드레아스 슈페링은 이제 형의 명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8.557433

바르토크 발레 ‘이상한 중국관리’, 헝가리 풍경, 댄스모음곡
마린 알소프(지휘), 본머스 심포니
(가디언) 이달의 음반. “이 긴장된 연주는 작품의 격렬함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다. 알소프는 바르토크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유연하게 지휘하였다.” (더 타임스) 지휘대 위에 자리 잡고 있던 굳건한 금년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린 마린 알소프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바르토크의 파격적인 관현악작품에서 다시 한번 또 겹겹이 떠오른다.



8.557491

강들루브 오베르뉴의 노래(21곡 발췌)
베로니크 장(소프라노), 장 클로드 키지드슈(지휘), 릴 국립교향악단
(클래식스투데이) 10점. “오베르뉴 토박이가 부르는 진정한 오베르뉴의 노래가 등장하였다.” (그라모폰) “전곡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 음반이 최상의 선택이다.” (클래식스투데이) 바로크성악곡에서 큰 성공을 거둔 뒤 점차 레퍼토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베로니크 장이 자신의 고향방언을 담은 향토색 짙은 이 작품을 아름답게 노래하였다.

New Release

- 8.557075** 슈만: 시인의 사랑, 리더크라이스 토마스 바우어(바리톤), 우타 히엘셔(피아노)
- 8.557186** 레가: 오르간소나타 2번, 오르간소품 Op.65, 코랄환상곡 2번 슈테판 프랑크(오르간)
- 8.557248** 북스테후데: 일곱 개의 소나타 BuxWV252-258 존 할러웨이(바이올린), 얀 테르 린덴(비올라 다 감바), 라스 울릭 모르텐센(첼발로)
- 8.557364** 리스트: 발라드, 폴로네이즈, 3개의 스위스 소품 장 뒤베(피아노)
- 8.557397** 맥스웰 데이비스: 낙소스사중주 3,4번 마기니 사중주단
- 8.557472-73(2CD)** 프로베르가: 토카타와 파르티타, 명상곡, 페르디난트 3세의 죽음에 대한 애가 세르지오 바르톨로(첼발로)
- 8.557495** 쾰터: 영국민요편곡, 여성 성부를 위한 파트송 필립 랭그리지(테너), 아만다 피트(소프라노), 데이빗 윌슨 존슨(베이스) 외
- 8.557552** 클라라 슈만: 피아노협주곡, 피아노트리오 로돌포 보누치(피아노), 스테파니아 리날디(지휘), 알라 말라 신포니에타
- 8.557631** 구리다: 피레네교향곡 후안 호세 메나(지휘), 말바오 심포니

Naxos American Classics

- 8.559195** 키르히너: 실내악작품집 콘터논 실내악 앙상블
- 8.559213** 채드윅: 교향곡 2번, 교향적 스케치 테오도르 쿠차르(지휘),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Naxos Historical

- 8.110789** 유시 비올랑: 독일리트와 노래들(1939-1952)
- 8.110979** 요제프 시게타: JS 바흐와 타르티니의 바이올린협주곡(1937-1954)
- 8.110986** 파블로 카잘스: 앙코르소품과 편곡작품들 (1916-1920)
- 8.111081** 캐슬린 페리어: 영국 제도의 노래들 (1949-1952)

Naxos Nostalgia

- 8.120782** 존 맥코맥: Remember (마티나타, 천사의 세레나데 외) (1911-1928)

Naxos Jazz Legends

- 8.120762** 더 도지 브라더즈: Stop, Lool and Listen (1932-1935)



Legendary Singer
캐슬린 페리어

Hot Issue
존 엘리엇 가드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

Historic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전집

아름다운 음악얘기를 담은 음반정보지 [아울로스 뉴스]를 내며

안녕하세요. 아울로스 뮤직의 음반을 사랑해주시는 애호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 5월호로 테이프를 끊은 이 작은 책자는 아울로스 뮤직이 앞으로 매달 발행하게 된 음반 정보지입니다. 음반숍이나 인터넷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수많은 음반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많은 음반들은 소비자들을 끌기 위한 온갖 과장된 카피나 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애호가들은 그런 글귀들을 보며 음반을 구매하지만, 때때로 과장 글귀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또 경기 침체로 음악잡지도 줄어들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지면이 넓지 않아 각 음반사의 많은 중요 음반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나왔다가 잊혀지곤 합니다. 아울로스 뮤직은 오래 전부터 이런 현실을 반성해왔고, 아울로스가 제공하는 아이템들만이라도 매달 정리하고 정말 좋은 음반들만 엄선해서 애호가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 작은 정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로스 뉴스를 통해 매달 소개되는 음반들은 모두 국내외 유명 필자나 음악전문가들이 믿고 구입해도 좋다고 판단을 내린 것들입니다. 검증 후에 실기 때문에 한 템포 늦게 실리는 아이템도 있을 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라며 물론 아울로스 뮤직의 홍보지이니 당사에서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음반들만을 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울로스 뮤직의 자존심을 걸고 베스트 아이템 위주로 신는 것이니 애호가들은 책자에서 높이 평가한 어떤 음반을 구입 하더라도 거의 실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책자의 일정한 부분에는 신보안내 섹션을 마련하여 그달 그달 어떤 음반이 나왔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울로스 뉴스에 오르는 베스트 음반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조그만 책자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로스 뮤직
클래식 음반 기획부



표지사진 : 캐슬린 페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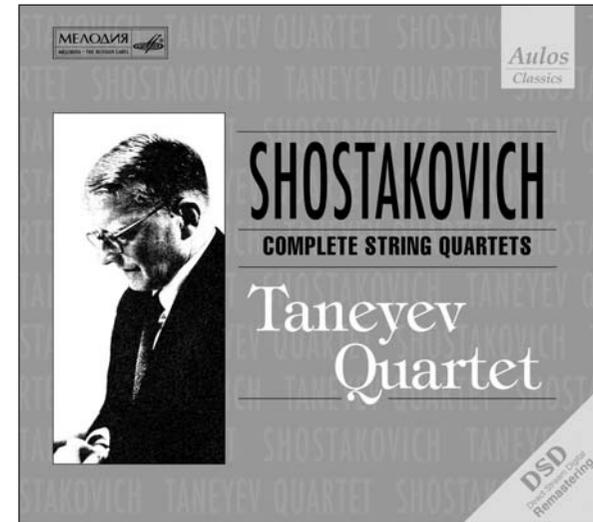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5월호
통권 제 1호 발행 : 2005년 5월 10일

발행인 : 임응목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뮤직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전집



AMC2-055(6CD)

쇼스타코비치 최후의 현악 사중주를 초연했던 역사적 실내악단!

고전음악의 중요 레퍼토리와 그 명연주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경험들이 주로 CD시대에 집중된 요즘 젊은 애호가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녹음이란 그야말로 하나의 '고전'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이다. 더군다나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녹음이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명연주로 대뜸 푸르트벵글러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반을 떠올리듯이, 골수팬들은 아마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의 최고 명연주 음반은 곧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것이라는 등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에 열광하는 이유는 쇼스타코비치와는 도저히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연주단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쇼스타코비치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그의 대부분의 현악 사중주를 초연했던 사중주단은, 1923년에 창단되어 1975년까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창작경력과 함께했던 모스크바의 베토벤 사중주단이었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은 바로 그 베토벤 사중주단의 뒤를 잇는 가장 중요

한 쇼스타코비치 해석자였다. 1946년에 창단되어 평소 작곡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가장 감동적으로 연주해주는 악단으로 지목했다고 하며, 그 신망으로 최후의 현악 사중주곡인 15번을 초연하는 역사적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실내악단이 바로 타네예프 사중주단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육성 같은 느낌

이런 사정만 봐도 이번 박스에 담긴 음원의 가치는 쉽게 따지기 어렵다. 모두 레닌그라드 글린카 홀에서 있었던 녹음인데, 3번만 1968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1970년대 녹음이다. 특히 15번은 초연 직후인 1974년 12월 녹음이라서 역사적 순간을 거의 그대로 맞는 것과 진배없다. 타네예프 사중주단은 성실한 자세로 쇼스타코비치 악곡의 의미와 전체주의 하 예술가의 고뇌를 하나하나 깊이 천착하고 있는데, 문득 쇼스타코비치의 육성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많다. 음반 내지에는 타네예프 사중주단의 제 1바이올린 연주자로 오리지널 멤버인 블라디미르 오브차레코와의 인터뷰까지 실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살아 있는 전설과의 대화는 쇼스타코비치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할 것이다.

율리안 시트코베츠키 제1집

위대한 오이스트라흐가 무척 좋아했던, 전설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AMC2-054

율리안 시트코베츠키(Yulian Sitkovetsky)? 혹시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가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지휘자인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는 적어도 오르페오 레이블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악가이지만, 율리안을 얘기하면 애호가들은 대개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다. 그의 CD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리안은 바로 드미트리의 아버지다. 그래도 매우 낮은 이름이지만, 일단 그의 연주를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기에 넘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연주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율리안 시트코베츠키, 그의 위상은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뿐만 아니라, 아이작 스티븐, 예후디 메뉴인 등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했다는 얘기로 단번에 정립된다. 아울로스 뮤직에서 불후의 명연주 시리즈 제 1탄으로 선택한 율리안 시트코베츠키 음반은 율리안의 최고 명연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시

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메인 디사다. 정말 경외심으로 가슴 뛰게 만드는 명연인데, 도발적인 3악장이 특히 압권이다. 함께 실린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영혼의 세계에서 걸어온 듯 아릿한 파토스를 느끼게 하고, 사라사테의 '스페인 무곡'에서는 절묘하고 황홀한 루바토를 보여주며,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는 악마의 출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섬뜩하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말하는 율리안 시트코베츠키



"그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빛을 잃었을 것이다."
-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레코딩이다."
- 예후디 메뉴인



"내가 얼마나 마음 깊이 그를 좋아했는지 아는가!"
- 아이작 스티븐

세계가 인정해주는 아울로스의 라이선스 음반

영국 최고의 클래식 음반 리뷰 사이트 뮤직웹-인터네셔널(www.musicweb-international.com)에서 2004년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음반'으로 아울로스 뮤직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집(키릴 콘드라신 지휘)을 선정했습니다.

AMC2-043(10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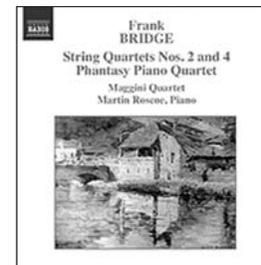
New Release

Naxos

Naxos 8.557283

브리지 :
현악 사중주 2번 & 4번 환상 피아노 사중주

연주 : 마기니 사중주단



그라모폰 2005년 5월호 '이달의 음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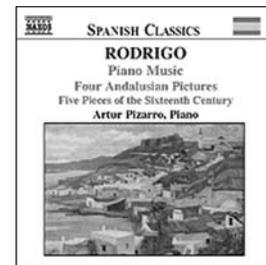
마기니 사중주단이 마침내 브리지 사이클을 완성했다. 이번 음반에는 1915년 작품으로 그해에 코베트(Cobbett)상을 수상한 작품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실내악 걸작이라 할 수 있는 현악 사중주 2번이 들어 있다. 현악 사중주 4번은 브리지 생애 만년에 씌어진 강렬한 이미지의 작품이다. 닉소스의 녹음도 찬탄할만하다! 노련한 윌튼-토마스 프로덕션 팀의 각고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잡힌 음의 균형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이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음반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참고로 프랑크 브리지는 벤저민 브리튼의 선생이다. 브리튼은 평소 스승의 음악을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Naxos 8.557282

로드리고 :
피아노 작품집 Vol.1

연주 : 아르투르 피차로(피아노)



아란후에스 협주곡 작곡가의 또 다른 모습

로드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란후에스 협주곡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피아노 음악을 포함하여 다른 장르의 음악도 많이 썼다. 로드리고는

자신의 많은 피아노 음악들이 애호가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은근히 걱정했다고 한다. 탁월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피차로는 이 음반에서 로드리고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뛰어난 피아노 음악 작곡가였는가를 잘 확인시켜준다. 자장가, 파스토랄, 프렐류드, '폴 뒤카를 존경하여' 등 흥미로운 제목의 작품들이 가득 실렸다.

*그라모폰 4월호 에디터스 초이스

Naxos

Naxos 8.110308-10(3CD)

바그너 : 오페라 <로엔그린>

연주 : 볼프강 빈트가센/헤르만 우데 등,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지휘 : 요제프 카일베르트

위대한 영웅적 테너 볼프강 빈트가센 주역

당대 최고의 '영웅적 테너'였던 볼프강 빈트가센이 주인공 로엔그린으로 등장하는 뛰어난 녹음. 바그너 합창지휘자의 대명사 빌헬름 피츠에 의해 연마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합창단의 주도면밀하고 화려한 가창, 그리고 브루크너, 피츠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뿐만 아니라 바그너에 정통했던 지휘자 요제프 카일베르트의 전설적인 지휘! 더 바랄 것이 있으랴! 1953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녹음, 바그너 애호가들에게는 환상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템이다!

Naxos 8.111007

레하르 :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연주 :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에리히 쿤츠/니콜라이 게다 등, 필하모니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지휘 : 오토 아케르만

초연 100주년 기념음반

2005년으로 <유쾌한 미망인>이 초연 100주년을 맞았는데, 낙소스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매한 뜻 깊은 음반이 바로 이 아이템이다. 명가수들이 대거 등장한 그 유명한 EMI 1953년 녹음인데, 타고난 한나(Hanna) 슈바르츠코프의 가창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슈바르츠코프의 불멸의 명반이 EMI에 있지만(마타치치 지휘),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한 루마니아 출신의 스위스 지휘자 오토 아케르만과의 녹음도 매우 뛰어나다. 아케르만의 지휘가 대단히 뛰어난데, 실제로 그는 빈 오페레타가 장기였고, 그것의 녹음과 공연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마타치치의 음반과 함께 꼭 구비해야 할 역사적 명반이다.

Naxos historical 8.110936

베토벤/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페츠

연주 : 야샤 하이페츠(바이올린), NBC교향악단&토스카니니(베토벤),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 쿠세비츠키(브람스)



하이페츠의 그 유명한 두 음원

이런 하이페츠의 명반을 향상된 음질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베토벤 협주곡 1악장에서는 아우어의 것을 하이페츠 자신이 편곡한 카덴차를 쓰고 있는데, 토스카니니의 NBC 교향악단과 불꽃같은 연주를 펼친다. 솔직히 말해 베토벤 협주곡은 토스카니니의 '잔인한 해석' 때문에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중요한 녹음은 쿠세비츠키가 만든 강력하고 유려한 흐름에 풍부한 감정의 하이페츠 보잉이 어우러진 브람스의 협주곡이다. 첫 악장에는 역시 아우어-하이페츠 버전의 카덴차를 사용하고 있고, 이 작품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옹호하게 그렸다. 2악장에서 보여주는 하이페츠의 예민한 감성, 보스턴 심포니 오보에 연주자의 목가적 선율은 매우 인상적이다.

Naxos SACD

Naxos SACD 6.110102-03(2CD)

바흐 : B단조 미사

연주 : 쾰른 실내 오케스트라, 임선혜, 안 헬렌베르크, 하노 뮐러-브라흐만 등 지휘 : 헬무트 뮐러-브뤼hl



강렬한 설득력

기라성 같은 명지휘자들의 수많은 명연주 녹음이 있지만, 낙소스도 좋은 녹음 하나를 가지고 있다. 독창자들과 합창단원들이 매우 뛰어나고, 지휘도 탁월하다. 비록 원전 악기 연주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강한 스타일을 보여줬다. 템포를 다루는 지휘자의 특별한 능력으로 음악의 흐름은 매우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며 서정적인 맛도 각별하다. 이렇게 좋은 연주내용을 담은 고 음질 CD가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니!

Naxos SACD 6.110104

쇼스타코비치 : 재즈 모음곡 No.1-2

연주 :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 지휘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그 유명한 '낙소스 베스트셀러' 이제 SACD음향으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재즈 음악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음반에 실린 재즈 모음곡들은 바로 그의 재즈에 대한 특별한 취미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미 국내 몇몇 영화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아주 친숙해진 재즈 모음곡 2번 중의 월츠를 위시하여 쇼스타코비치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스며 있는 매력적인 모음곡들이 많이 수록되었다. 이 음반은 낙소스가 특별히 자랑하는 음반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판매된 음반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일반 CD뿐만 아니라 DVD오디오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SACD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유명한 '낙소스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제 환상적인 음향의 SACD로 재발매되었으니 일반 음반을 가지고 있는 애호가들, 또 후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다.

Naxos SACD 6.110075-76(2CD)

칼만 : 차르다슈 공주

연주 :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합창단과 방송 오케스트라 지휘 : 리처드 보닝



2005년 3월호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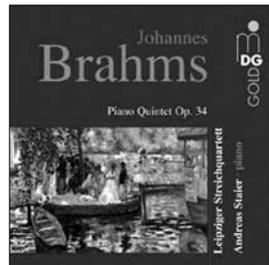
1915년에 작곡한 오페레타<차르다슈 공주>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없어질 세계에 대해 묘사한 작품으로, 에머리히 칼만(Emmerich Kalman)의 최고 성공작에 속한다. 오르페움 카바레 극장의 간판스타인 실비아 바레스쿠(Sylva Varescu)의 복잡한 연애편력과 함께, 극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린, 달콤하고 씩씩한 맛의 오페레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알싸한 헝가리 리듬과 우아한 빈 월츠가 결합하여 대단히 화려한 분위기의 음악이 특징이다. 이 오페레타는 후반부의 음악들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또 음악도 훌륭하지만 전곡녹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로텐베르크와 게다가 출연한 EMI녹음이 주요 전곡 녹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한 이 낙소스의 음반의 성취도에는 못 미친다. 보닝은 맹렬하게 전진하는 리듬, 세밀하고 이국적인 오케스트레이션, 불처럼 타오르는 격정과 잔잔한 애환 및 우수를 멋지게 대조시키는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타이틀 롤을 맡은 이본 케니는 강력한 힘과 열정 그리고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준다. 작곡가의 후손인 이본 칼만의 카메오 출연도 흥미롭다. 칼만의 다른 오페레타에서 간추린 관현악 레퍼토리들이 서비스 트랙으로 이어져 있어 더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MDG

MDG307 1218-2

브람스 : 피아노 오중주 Op.34

연주: 안드레아스 슈타이어(피아노), 라이프치히 사중주단



가벼운 브람스의 설득력

대부분의 명연주들, 예를 들어 유명한 루돌프 서킨(Rudolf Serkin)과 부다페스트 사중주단 혹은 피터 서킨과 과르네리 사중주단의 연주 등은, 브람스 작품의 정서적인 내용을 탐구하려는 의욕으로 리리시즘이나 페이스스를 강조하는 해석을 즐겼다. 하지만 슈타이어와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의 이번 연주는 기존 명연주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매우 가벼운 브람스다. '가벼운 연주'의 주범은 피아노다. 슈타이어가 연주한 피아노는 1901년 스타인웨이 D모델인데, 현대 악기보다는 확실히 가벼운 음을 낸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가벼운 것이 진짜 브람스 음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브람스 시대 피아노는 요즘 피아노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그냥 듣고 즐기는 애호가들의 입장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격 해석자에게 오늘날 콘서트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압도적인 피아노 음향이란 분명한 오류일 것이다. 예민한 브람스는 현악기끼리는 물론이고 현악기와 피아노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연결했다. 가끔 브람스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피아니스트가 서커스를 즐기는 경우를 보는데, 갑갑해 미칠 지경이다. 브람스 음악의 섬세한 텍스처, 야릇한 색감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균형을 이뤄야 색상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슈타이어와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은 브람스 음악 해석의 중요한 지평을 제공했다. 과도한 비브라토를 자제한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의 현악 앙상블과 슈타이어의 피아노는 너무도 잘 어울린다. 특히 1악장과 스케르초 악장이 매력 만점이다. *그라모폰 2005년 1월호 에디터스 초이스

KKV - 히르켈리히

KKV FXCD 287

이베르 클레이베가 연주하는 '목자의 예배'

피아노 연주: 이베르 클레이베



달콤하고 명상적인 피아노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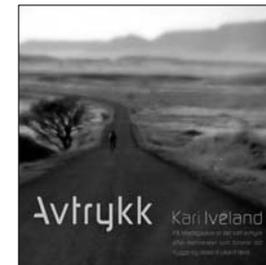
KKV가 선보이는 올해 최고의 크리스마스 CD! 이베르 클레이베가 달콤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의 피아노 선율로 참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들려준다. '고요한 밤', '아름다운 구주',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네', '내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 등 주옥같은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야코브 교회 스타인웨이 피아노 선율로 퍼진다. 음악들은 하나같이 간결하지만 너무도 달콤하다!

KKV - 히르켈리히

KKV FXCD 286

카리 이베란드가 연주하는 '인상'

연주: 카리 이베란드와 그녀의 악단



마다가스카르의 음악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대륙 남동 해안 앞바다에 있는 인도양 남서부의 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그 섬나라의 전통음악들을 담았다. 카리 이베란드와 그녀의 밴드는 현지 의 마다가스카르 합창단 및 음악가들과 협력해서 수백 년 전 유럽인들이 전파한 음악들을 참신한 버전으로 들려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인가', '하늘의 성을 알고 있다네'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12개 트랙에 걸쳐 실려 있다.

KKV FXCD 283

스크루크 합창단이 노래하는 여름의 땅

연주: 스크루크 합창단



삶의 기쁨과 감사

KKV의 간판급 합창단인 스크루크 합창단이 들려주는 소망의 노래들 모음이다. 아무리 차가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도 단번에 녹여버릴 감동적인 노래들로 가득한데, 음반의 컨셉트는 '희망을 여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음성에는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있고,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신이 이 땅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담긴 신의 약속이 있다. 하나하나의 트랙이 의미심장하고 아름답다!

KKV FXCD 288

림 바나가 노래하는 "내 영혼의 거울"

연주: 림 바나



나자레트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던 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갈릴리의 나자레트 노래들을 수록하고 있다. '악의 축에서 나온 자장가'와 '크리스마스 음반인' 보잘 것 없는 구유 '로 노르웨이에서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인 림 바나는 이 새 음반으로 또 한번 충격적인 변신을 한다. 강렬한 호소력을 지닌 음성을 지닌 그녀는 실제로 나자레트 출신이다. 그녀의 노래는 네 명의 뛰어난 노르웨이 음악가들(베이스, 키보드, 드럼, 기타)이 반주해준다. 너무도 매혹적인 음반이다.

Arthaus DVD

Arthaus DVD 100 417

글루크 : 오페라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연주 : 로열 오페라 합창단,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지휘 : 하르트무트 헨헨



가죽 자켓을 입고 전자 기타를 든 현대적 오르페오의 “죽은 아내 되찾기”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는 18세기 오페라 개혁운동을 대표하는 명작이며 ‘유리디체를 잃고’를 비롯한 주옥같은 아리아와 발레 음악으로 유명하다. 독일 출신의 혁신적 연출가 하리 쿠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취재한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오르페오는 가죽 자켓과 청바지 차림에 전자 기타를 들고 다니는 로키이며, 유리디체는 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설정한 것이다. 원래 베를린 코미세 오페라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1991년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었을 때는 그해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드레아스 솔이 가장 닳고 싶은 선배로 꼽았던 독일의 카운터테너 요헨 코발스키가 오르페오 역을 맡아 탁월한 노래와 강렬한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영국의 젊은 소프라노 질리안 웹스터가 유리디체를 노래한다. 카운터테너를 기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지만 혁신적 연출과 달리 연주는 전통에 충실한 편이다.

Arthaus DVD 100 333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음악 : 사이먼 래틀/베를린 필하모닉 영화 : 올리버 헤르만(감독)
출연 : 조피 제민(에스터), 아리아드나 델 카르멘(루치아), 로베르트 훈거-빌러(바르도트 박사)



이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와 비운의 천재연출가의 충격적인 만남

이 특별한 영상물은 독일의 젊은 감독 겸 연출가 올리버 헤르만의 충격적인 백조의 노래다. 5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2004년)는 바로 김기덕 감독이 영화 ‘사마리아’로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던 자랑스러운 무대였다. 바로 그 축제 기간 동안 특별한 영화의 시사회가 있었는데 5개월 앞서 40세의 한창의 나이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올리버 헤르만의 무성영화가 래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라이브연주와 함께 상영되었던 것이다. 스트라빈스키의 혁명적인 발레 ‘봄의 제전’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 단편영화는 남편의 죽음 이후 무기력증에 빠진 에스터, 아버지의 성적학대 끝에 섹스중독에 빠져버린 루치아, 심각한 결벽증의 결과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바르도트 박사 세 사람이 환상 속에서 부두교 풍의 주술적인 전례를 통해 자신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말끔히 치유 받는 과정을 상징적이고도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래틀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하나, 현대인의 심리적인 공황과 초자연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종교행위를 강렬하게 대비한 헤르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앞선 실험정신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 5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상영작
- * 2004년 루체른영화제 황금장미상
- * 2004년 비버리힐즈영화제 최우수외국영화상
- * 골든 프라하 국제TV페스티벌 특별상

Arthaus DVD

Arthaus DVD 101 083

베르디 : 팔스타프

연주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글라인드본 합창단
지휘 : 존 프리처드



전설적인 장 피에르 포넬이 연출한 최고의 희극 오페라

80세를 넘긴 베르디가 작곡한 <팔스타프>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작곡가의 통찰력과 예술적인 완성도가 극한까지 이른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평생토록 역사와 인생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헌신했던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을 이토록 유쾌하고 호탕한 희극으로 마무리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는 셰익스피어의 원작보다 극적으로도 더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곤 한다. 1977년 에딘버러 페스티벌 실황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연출가 장-피에르 포넬의 프로덕션이기에 더욱 빛난다. 무대를 보면 알겠지만 향후 전개되는 <팔스타프> 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정표적인 공연이기도 하다. 게다가 포넬의 영상자료가 대개 스튜디오 촬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연실황인 이 영상물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팔스타프 역은 한창 활동할 나이에 아쉽게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바리톤 도널드 그램이 맡았는데, 팔스타프의 노추(老醜)가 그토록 뛰어난 미성과도 잘 어울린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Arthaus DVD 100 369

로시니 : 이탈리아의 터키인

연주 :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 : 프란츠 벨저-외스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과 대칭을 이루는 걸작! 그 첫 영상물!

로시니는 겨우 21세에 이슬람 궁전의 하렘(후궁)을 탈출하는 유럽 여인의 얘기인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대에 가장 인기있는 소재였다. 로시니는 이듬해에 이런 상투적인 구조를 역전시켜 이탈리아를 방문한 터키 태수라는 설정으로 새 오페라를 작곡했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터키인>이다. 한동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의 아류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로시니는 이 전작(前作)으로부터는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다. 본 영상물은 2002년 가을 취리히 오페라 실황이며 이탈리아 베이스의 지존적인 루제로 라이몬디가 터키 태수를, 우리 시대 최고의 로시니 가수 체칠리아 바르톨 리가 여주인공 피오릴라를 부른다. 두 가수의 노래만으로도 로시니 희극 오페라의 진수를 만끽하기에는 충분하다. 독창적인 것으로 유명한 취리히 오페라는 미묘한 ‘극중극’으로 설정된 이 오페라의 독특한 구조를 간결하면서도 재기 넘치는 무대로 잘 살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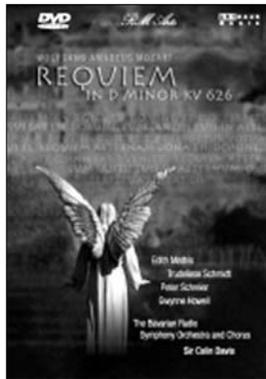
- * 5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상영작
- * 2004년 루체른영화제 황금장미상
- * 2004년 비버리힐즈영화제 최우수외국영화상
- * 골든 프라하 국제TV페스티벌 특별상

Arthaus DVD

Arthaus DVD 100449

모차르트 : 레퀴엠 KV626

연주 : 에디트 마티스(sop), 트루델리제 슈미트(alt), 페터 슈라이어(te), 쿤 하웰(bass), 콜린 데이비스/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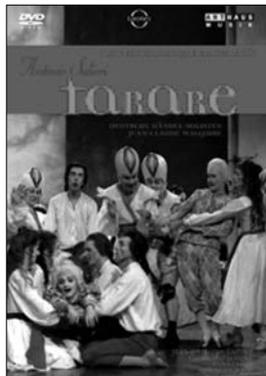
모차르트의 마지막 걸작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화려하게 재현

모차르트가 남긴 미완의 대작 '레퀴엠'은 1984년 전 세계를 모차르트의 열기 속으로 빠뜨렸던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우리에게 한층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외모에서부터 모차르트를 빼어 닮은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콜린 데이비스가 이 위대한 걸작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펼쳐나간다. 이 영상물은 콜린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했을 당시인 1984년의 기록으로 동(同)악단의 본거지인 뮌헨의 헤라클레스홀(Herkulesaal)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았다. 당당한 스케일과 더불어 온화한 기운을 함께 머금은 콜린 데이비스의 전통적인 해석이 일품이며, 에디트 마티스와 페터 슈라이어라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남녀 리트가수의 미성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력거리다. 영국의 대표적인 베이스가수 쿤 하웰과 카라얀의 교황집전미사 실황으로 낮은 독일의 실력과 알토 트루델리제 슈미트가 나머지 두 솔로파트를 담당하였다.

Arthaus DVD 100 557

타라레

연주 : 도이체 헨델-졸리스텐
지휘 : 장-클로드 말그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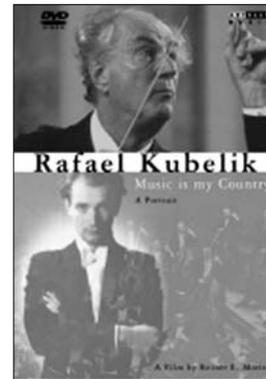
살리에리와 보마르세가 합작한 18세기 오페라의 결정판

〈타라레〉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원작자인 보마르세, 당대에 모차르트보다 훨씬 높이 평가받았던 최고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협력한 대형 오페라이다. 이 슬람 세계를 무대로 번덕스런 국왕의 폭정과 끝내 폭발한 부하들의 봉기가 변함없는 부부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어우러지는 내용인데, 사실은 프랑스 왕정체제를 비판한 것으로 대혁명 직전의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빈 고전주의의 명쾌한 작법을 지닌 살리에리가 프랑스 고유의 오페라 리리크 전통을 수용하여 유례없이 풍부한 음악을 탄생시켰다. 1988년 슈베칭겐 페스티벌 실황인 이 영상물은 장-피에르 포벨의 제자인 장-루이 마르티노티 프로덕션으로 볼거리 풍성한 무대를 꾸몄으며, 프랑스 고음악 연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장-클로드 말그와르의 지휘 아래 프랑스풍의 성악 양식을 잘 살린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 '잊혀진 작품의 부활'이라는 상투적 표현을 넘어서 대단한 작품의 발견이자 빛나는 연주이다.

Arthaus DVD

Arthaus DVD 100 723

라파엘 쿠벨릭 : '음악은 나의 고향'



체코의 위대한 거장 지휘자의 삶을 그린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저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안 쿠벨릭의 아들로 태어나 1934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데뷔해서 수많은 명연주와 명녹음을 남겼던 체코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의 일대기를 스케치한 귀중한 영상물. 1914년 생으로 2005년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그는 카라얀, 번스타인, 솔티 등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거장 중의 한사람이다. 쿠벨릭 음악은 자연스럽고 선율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라는 등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희귀한 영상들과 함께 감동적으로 전개된다.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포노 포룸의 저명한 비평가 헨리 포겔 등 주위의 유명한 지인들과 그의 아들이 쿠벨릭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보탠다. 쿠벨릭 최고의 레퍼토리인 '몰다우'가 흐를 땀 눈물이 앞을 가린다. 감동적인 영상물이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 125분.

BBC DVD

BBC/Opus arte OA0914D

어 심플 맨



영국의 독특한 화가 L.S.라우리를 무용으로 되살린 '그림같은' 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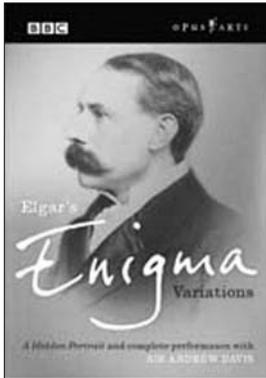
이 영상물은 영국이 자랑하는 개성적인 화가 L.S. 라우리의 탄생 100주년(1987년)을 기념하여 BBC 방송이 안무가 길리안 린에게 의뢰한 작품이다. 린은 뮤지컬 〈캐츠〉, 〈오페라의 유령〉을 안무한 것으로도 유명한 무용수 출신이다. 라우리는 20세기초 영국 북부의 산업지대의 삶을 잘 그려낸 대가이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미워한 모친과의 기나긴 애증관계로 영국 문화계에 유명한 일화를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길리안 린의 발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모친과의 갈등,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혈육의 사랑이다. 린은 라우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깊이 연구해서 그 분위기를 각 장면에 인상적으로 살려냈다. 따라서 이 발레에서는 여러 편의 회화를 보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일품이다. 로열 발레 출신의 크리스토퍼 게이블이 라우리 역을 맡았으며, 그의 모친에는 발레영화 〈분홍신〉으로 유명한 모이라 쉬어러가 당시 60세의 나이로 출연하여 열연한다. 음악은 영화 〈오만과 편견〉의 칼 데이비스가 작곡하여 직접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BBC DVD

BBC/Opus arte OA0917D

엘가 : 수수께끼 변주곡

연주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 : 앤드류 데이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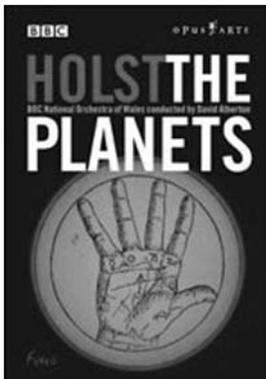
엘가의 고향마을 교회에서 녹화된 이 곡 연주의 결정판!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은 원 제목이 <관현악을 위한 독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지만, 악보 첫 장에 'Enigma(수수께끼)'란 표기가 있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주제와 14개의 변주로 된 이 작품은 엘가가 1899년에 쓴 작품인데, 엘가의 친구 14명의 특징을 스케치한 아주 특이한 작품이다. 중심 주제는 명확하지 않지만, '님로드' 등 느린 곡들은 우아하고 로맨틱한 정감이 넘치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 많은 명연주들이 있다. 하지만 이 앤드류 데이비스의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는 이 음악 연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엘가의 고향 마을인 우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녹화되었는데, 공간 음향이 너무도 아름답다.

BBC/Opus arte OA0916D

홀스트 : 행성

연주 : 웨일스 BBC 내셔널 오케스트라
지휘 : 데이비드 애서튼



명곡과 함께 듣는 과학적 이미지

홀스트의 최대 명작인 <행성>을 풍부한 영상의 세계로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화면을 꽉 채우는 장대한 이미지는 작곡가가 그린 각 행성의 소리그림에 오묘한 느낌의 상상력을 제공하는데, 뉴 멕시코, 아리조나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위를 대폭 로케이션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온갖 현대 영상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었다. 영상의 배경으로는 웨일스의 BBC내셔널 오케스트라가 뛰어난 음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영상과 잘 어우러져 한층 분위기를 돋운다. 딱히 과학적인 영상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비밀과 우리 상상력의 세계가 오버랩 되는 부분을 중시하며 만든 예술적인 작품이다. 59분.

BBC DVD Steady Seller

BBC/Opus arte OACN0902D

재클린 듀프레

연주 : 재클린 듀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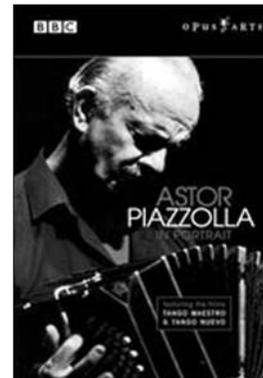


이 귀중한 영상물 BBC가 또 한번 놀라게 한다!!

여류 천재 첼리스트의 대명사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귀중한 영상물 오늘날 많은 여류 첼리스트들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녀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973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전설적인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의 생생한 영상물.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라면 그녀의 전설적인 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호가 없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하나! 베토벤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도 연주한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핀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재클린 듀프레. 우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BBC DVD, 수많은 상을 휩쓴 크리스토퍼 누웬 필름. BBC DVD 16:9화면/시간:150분/자막: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BBC/opus arte OA0905D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초상



탱고 거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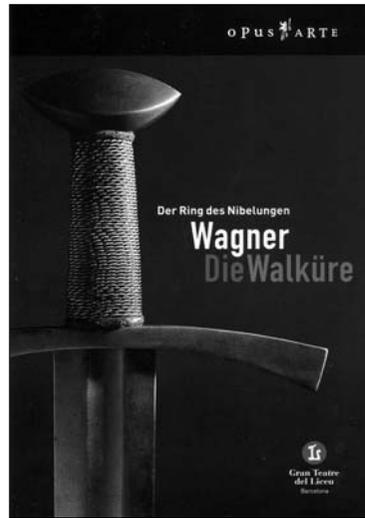
'현대 탱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밴드 리더 겸 작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물이다. BBC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대한 기획과 영상자료는 놀랄 정도! 피아졸라 한테 직접 마이크를 주어 그의 육성으로 솔직한 본인의 음악관과 거칠고 복잡한 자신의 개인적 삶 그리고 직업적 삶을 일목요연하게 듣게 되고,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와 함께 연주했던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확인한다. 1989년 음원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친 "탱고 누에보"의 스튜디오 녹음이 담겨있다는 사실도 특별하고 놀랍다. 또 <피아졸라: 그 인간과 음악>이란 타이틀의 부록에는 54분이나 되는 추가 인터뷰를 수록했다. 총 213분. 영어 자막처리 확실하게 되어 있음.

BBC DVD

BBC/Opus arte OA0911(3DVD)

바그너 : 오페라 <발퀴레>

연주 : 리세우 대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리처드 베클러-스틸(지크문트), 린다 왓슨(지클린데), 에릭 할프바르손(훈딩), 팔코 슈트룩크만(보탄), 데보라 플라스키(브륄힐데)
음악감독 : 베르트랑 드 비이



하리 쿠퍼의 예리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반지>시리즈 최고의 인기작 첨단 시설로 재무장한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대극장은 의욕적인 프로덕션을 연달아 선보이며 라 스칼라의 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유럽 오페라계의 새로운 명문이다. <반지> 4부작의 전반부 두 편은 2003~04년 시즌에 공연되었는데, 바이로이트 역사상 최고의 격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하리 쿠퍼가 연출을 맡았다. 특히 본 공연은 베를린의 도이치 슈타츠오퍼를 위한 개정판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어 바이로이트에서의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다소 순화되고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수용할만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발퀴레>는 지크문트와 지클린데의

거역할 수 없는 근친상간적 사랑, 신의 신분이면서도 수많은 약점을 지닌 보탄 일가의 문제, 애증이 교차하는 브륄힐데와 그녀의 부친인 보탄과의 논쟁을 통해 영웅 지크프리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지> 4부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시놉시스>

○ (1막) 적에게 쫓긴 지크문트가 지클린데의 집으로 뛰어든다. 둘은 묘한 친근감을 느낀다. 귀가한 지클린데의 남편 훈딩은 지크문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둘은 다음날 싸우기로 한다. 훈딩이 잠들자 지클린데는 지크문트에게 다가가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토로한다. 지크문트는 기둥에 깊이 박힌 보검을 보고 아버지(보탄)와의 약속을 떠올리는데 이를 통하여 둘이 자매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 지크문트는 보검을 단번에 뽑아내고 함께 숲으로 달아난다.

○ (2막) 최고신 보탄은 인간 세상에 남겨둔 아들 지크문트를 지키라고 딸 브륄힐데에게 명한다. 그러나 결혼의 신인 아내 프리카는 근친상간의 죄값으로 지크문트의 죽음을 요구한다. 보탄은 갈등 끝에 브륄힐데

에게 훈딩의 편에 서라고 지시를 바꾼다. 브륄힐데와 이중창을 통해 보탄은 사랑과 권력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 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탄식한다. 그러나 막상 결투가 벌어지자 브륄힐데는 지크문트를 편든다. 당황한 보탄이 직접 나서서 훈딩이 지크문트를 죽이도록 한다. 브륄힐데는 지크문트의 아이를 임신한 지클린데를 신고 달아난다.

○ (3막) 자매들(발퀴레)이 모여 있는 곳에 브륄힐데가 지클린데를 데리고 나타난다. 지클린데가 슬픔에 잠겨 죽으려고 하자 브륄힐데는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주며 진정시키고 피난처를 알려준다. 보탄은 명령을 어긴 브륄힐데를 벌하기로 한다. 신성(神性)을 빼앗아 발할 성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브륄힐데는 지크프리트가 태어남으로써 지크문트의 자손이 이어질 것임을 알리며 용서를 빈다. 보탄은 로계를 불러 잠든 브륄힐데를 불의 원 안에 가두도록 명령한 후 두려움을 모르는 자만이 불을 뚫고 들어가 브륄힐데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BBC DVD

BBC/Opus arte OA0915(3DVD)

바그너 : 오페라 <파르지팔>

연주 : 베를린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퍼 벤트리스(파르지팔), 발트라우트 마이어(쿤트리), 마티 살미넨(군네르만츠), 토마스 햄슨(암포르타스), 톰 폭스(클링조르)
지휘 : 켄트 나가노



4개의 국제적 오페라 극장이 공동 제작한 <파르지팔>의 최신 결정판

<파르지팔>은 바그너 최후의 오페라이며 바그너가 특별히 '종교적 신성극'으로 불렀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바이로이트에서만 공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제는 그 제한이 풀렸지만 바그너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메시지를 4시간이 넘게 전달하는 이 작품을 만날 기회는 좀처럼 흔치 않다.

이 대작을 위해 바덴바덴 축제극장, 영국 국립 오페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라는 세계적 극장들이 뭉쳤다. 그리고 2004년 여름에 바덴바덴에서 공연된 그 결실이 여기 담겨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바그너 연출가의 한 사람인 니

콜라우스 랭호프가 "종교극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고독, 소외에 대한 드라마"라는 시각에서 이 작품을 연출했다. 그러나 상징적 무대와 공들인 의상은 <파르지팔>의 보편적 매력을 심본 살렸다.

켄트 나가노와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이 작품에 어울리는 투명한 연주를 펼치며, 크리스토퍼 벤트리스, 발트라우트 마이어, 마티 살미넨, 토마스 햄슨 등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한다. 60분짜리 제작다큐멘터리도 제공된다.

<작품에 대하여>

○ 파르지팔은 중세 신화에서 성배를 지키는 왕의 이름이다. 그는 철없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긴 여행과정에서 영웅성을 획득하여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 바그너는 이 파르지팔 신화에 특유의 상상력과 논리성을 가미하여 대단히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 바그너는 이 작품을 이전의 음악극(music drama)과 구별하여 '종교적 신성극'이라 불렀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기독교를 받아들인 r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기만이라는 반발도 있다. 처음에

바그너를 추종했던 니체같은 이는 "바이로이트 극장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부르조아 앞에 엎드려 아부하는 꼴'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 어쨌든 <파르지팔>은 바그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최후의 과제로 남겨둘 만큼 어려운 작품이다. 4시간이나 소요되지만 거의 단 한번도 멋지게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배제하고 지극히 장중하고, 신비롭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품의 주제인 '구원'의 의미에 충실한 것이다.



BBC DVD

BBC/Opus arte OA0910(3DVD)

바그너 : 라인의 황금

연주 : 리세우 대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팔크 슈트룩크만(보탄), 쿤터 폰 칸넨(알베리히), 리오바 브라운(프리카), 그레함 클락(로게), 언광철(파졸트), 마티아스 뢰(파프너)
음악감독 : 베르트랑 드 비이



'바이로이트의 전설' 하리 쿠퍼의 업그레이드된 <라인의 황금>

바이로이트 가극장의 <반지> 공연사에서 가장 큰 논란과 격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연출자로는 1970년대 후반의 파트리스 세로, 1980년대 후반의 하리 쿠퍼가 꼽힌다. 두 연출 모두 영상물로 제작되었으나 쿠퍼의 것은 DVD로 재발매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하리 쿠퍼가 1990년대에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연출한 <반지>의 영상물이 드디어 발매된다. 2003 시즌과 2004 시즌에 걸쳐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에 올려졌던 시리즈의 일환이다.

<라인의 황금>은 나흘에 걸쳐 펼쳐지는 전체 사이클의 전야(前夜)에 해

당하는 작품이며 반지를 둘러싼 권력욕의 근원, 보탄의 책임과 신들의 운명 그리고 파프너에게 넘어간 반지의 소재를 설명한다. 전위적이었던 바이로이트 프로젝트에 비해 하리 쿠퍼의 연출은 훨씬 설득력이 컸으며,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리세우 극장의 무대를 활용하여 빛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이 자랑하는 베이스 연광철이 거인 파졸트 역을 맡았다.

<시놉시스>

○ (1장) 라인 강물 속의 세 요정이 해엄치며 놀고 있다. 지하세계 니벨룽족의 알베리히가 나타나 그들을 희롱하지만 오히려 멸시를 당할 뿐이다. 알베리히는 요정들로부터 이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는 자는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을 얻는 대신 영원히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밀을 엿듣는다. 알베리히는 황금을 빼앗아 달아난다.

○ (2장) 최고의 신 보탄과 그의 아내 프리카 눈앞에 웅장한 발할성이 보인다. 신과의 계약에 따라 거인 파프너와 파졸트 형제가 지은 것이다. 보탄은 그 대가로 처제인 프라이아를 주기로 약속했다. 거인 형제가 나타나 약속대로 프라이아를 달라고

한다. 프리카의 원망으로 곤경에 빠진 보탄은 피 많은 로게의 지혜를 빌린다. 로게는 알베리히의 황금과 반지 얘기를 꺼내고, 거인들은 프라이아보다 황금과 반지를 탐내게 된다.

○ (3장) 지하세계로 내려간 보탄과 로게 일행은 알베리히를 속여 그를 포획하고 지상으로 끌고 온다.

○ (4장) 잡혀온 알베리히는 할 수 없이 지하로부터 황금을 날라 오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권력의 상징인 반지마저 빼앗긴 알베리히는 무서운 저주를 반지에게 퍼붓고 풀려난다. 보탄은 반지만큼은 꼭 소유하고 싶지만 황금이 모자라므로 반지를 내놓으라는 거인 형제의 요구와 대지의 여신 에르다의 경고 때문에 하는 수없이 반지를 거인에게 내놓는다. 반지의 저주는 금방 효력을 발휘하여 거인 형제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동생 파프너가 형 파졸트를 때려 죽인다. 상황이 끝나자 보탄 일행은 풀려난 프라이아를 데리고 새로 지어진 발할성으로 입장한다. 영리한 로게는 이것이 종말의 시작임을 예감한다.

BBC DVD

BBC/Opus arte OA0893

쇼팽 : 피아노 음악 / 전주곡 Op.28 / 연습곡 Op.10& Op.25 / 소나타 Op.35

연주 : 프레디 캠프 / 알프레도 페를 / 앤절러 휴이트(피아노)



프레디 캠프& 앤절러 휴이트의 얼굴을 보다!

보고 싶던 우리 시대의 매혹적인 피아니스트 세 명이 쇼팽의 피아노 명곡들을 연주해준다. 쇼팽의 전주곡 Op.28은 최근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 베토벤 피아니스트로 각인된 칠레의 명 피아니스트 알프레도 페를이 연주했고, 두 세트의 연습곡(Op.10과 Op.25)은 BIS레이블에서 활동하는 미남 피아니스트 프레디 캠프가 연주했다. 캠프는 한 곡마다 웃을 다르게 입고 나오고 배경까지도 바뀌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며 이 영상물을 만들었는가를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B플랫 단조 Op.35는 하이퍼어리언에서 바흐 전문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친 앤절러 휴이트가 연주해준다. 쇼팽의 이런 명곡들 전곡을 담은 영상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피아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선물해도 좋겠다! 모두 2003년 최신 영상.

TDK DVD

TDK DVUS-OPIP(2DVD)

벨리니 : 청교도

연주 : 리세우 대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에디타 그루베로바(엘비라), 카를로스 알바레즈(리카르도 4세), 호세 브로스(탈보), 시몬 오르필라(지오르지오)
지휘 : 프리드리히 하이더



빈센초 벨리니의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걸작, 그 사상 첫 영상물

로시니, 도니제티와 더불어 벨칸토 오페라의 3대 작곡가로 꼽히는 빈센초 벨리니의 마지막 작품인 <청교도>의 사상 첫 영상물이다. 이 오페라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배경으로 청교도 지도자의 딸인 엘비라와 왕당파인 아르투로의 안타까운 사랑을 어떤 오페라보다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당대의 오페라와 발레에서 크게 유행했던 '광란의 장면'을 가장 탁월하게 다룬 명작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대명사인 에디타 그루베로바(엘비라)의 절창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의 젊은 유망주 호세 브로스(아르투로)와 카를로스 알바레즈(리카르도)의 기량에도 주목해야 할 2001년 2월의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실황. 특히 호세 브로스는 벨리니가 당대의 명테너 조반니 바티스타 루비니를 위해 삼입한 하이C#과 하이D의 엄청난 고음을 팔세토를 사용하지 않은 진성으로 불러낸다.

TDK DVD

TDK DVUS-CLOPUBIM

베르디 : 가면무도회

연주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라치도 도밍고(구스타프 3세), 레오 누치(레나토), 조세핀 바스토우(아멜리아), 조수미(오스카), 플로렌스 퀴바르(올리카)
지휘 : 게오르그 솔티



조수미가 세계적 명성을 얻는 디딤돌이 된 1990년 잘츠부르크 공연실황.

한국이 자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카라얀에게 발탁되어 <가면무도회>에 출연한 것이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카라얀이 곧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수미의 잘츠부르크 출연은 게오르그 솔티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이 영상물은 바로 그 실황이며 조수미는 가벼운 소프라노의 대표적 역인 오스카를 부른다.

<가면무도회>는 실제로 벌어졌던 스웨덴 국왕 암살 사건에서 취재한 것이며,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남자 테너 주역이 고귀한 인품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위대한' 구스타프 3세에 딱 어울리는 노래와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잘츠부르크 대극장극장의 넓은 무대를 십분활용한 존 솔레진저의 연출도 구스타프의 인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대역인 조세핀 바스토우(아멜리아), 레오 누치(레나토)의 경우도 가장 전성기의 모습이 담겨있다.

TDK DVUS-BLCHS

롤랑 프티 : 발레 <박쥐>

연주 : 스킨라 극장 발레와 오케스트라
안무 : 롤랑 프티



오페레타 최고의 명작 <박쥐>를 발레로 만든 유쾌하고 기발한 작품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는 빈 오페레타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며 요즘도 세계 각지의 연말연시 무대에 가장 많이 올려지는 최고의 인기작이다. 이 오페레타가 발레로 새롭게 태어났다. 평단의 찬사와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흔치않은 존재인 롤랑 프티가 자신의 아내인 프랑스 발레계의 슈퍼스타 지지 장메르를 위해 1979년에 안무한 작품이다.

오페라의 복잡한 줄거리를 대폭 단순화하여 주요 등장인물을 요한, 그의 아내 벨라, 친구 올리히, 테너 가수, 차르다슈 무용수 정도로 압축시켰지만 원작의 유머와 기발함은 그대로 살아있다.

2003년 12월 밀라노 라 스킨라 발레 실황이며, 오늘날 지지 장메르에 필적할만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매력적인 발레리나 알레산드라 페라가 벨라 역을 맡았다.

TDK DVD

TDK DVUS-OPEON

차이코프스키 : 예프게니 오네긴

연주 :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지휘 : 마르크 에르클러



특별한 추억의 지휘자, 마크 에르클러의 2000년 볼쇼이 실황

마크 에르클러는 볼쇼이 가극장과 서울 시향의 예술감독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2000년 여름에는 볼쇼이 오페라를 서울에 불러와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인드의 여왕>을 공연하기도 했던 거장이다. 2002년 4월 서울 시향의 리허설 도중에 쓰러져 향년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푸쉬킨의 극시를 원작으로 한 <예프게니 오네긴>은 러시아 오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 DVD는 에르클러가 2000년 서울 공연을 마치고 그해 10월에 볼쇼이 무대에 올린 실황을 담았다. 볼쇼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1944년의 무대를 재현하였는데 잊이 무성한 초대형 나무를 배치한 1막이라든가 러시아 대귀족의 실제 연회장보다도 넓적하고 웅장한 3막은 감히 볼쇼이가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오늘날 볼쇼이 오페라를 대표하는 블라디미르 레드킨(오네긴), 마리아 가브릴로바(타치아나), 엘레나 노박(올가), 니콜라이 바스코프(렌스키)가 총출동한 <예프게니 오네긴>의 본바닥 명연이다.

TDK DVUS-BLAP

마츠 에크 : 아파트먼트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



모던 댄스로 관찰한 아파트의 삶 : 소통과 소외가 공존하는 곳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는 북유럽 최고의 안무가 마츠 에크는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미녀>등 고전 발레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급진적인 현대적 해석을 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머리 백조들이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의 국내 공연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아파트먼트>는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한 마츠 에크의 신작 발레이며, 전자악기를 연주하는 플래쉬 콰르텟의 생음악을 배경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 인간 군상의 행태를 암울하고 기괴하게, 그러면서도 유머와 사랑의 표현을 곁들여 그려내고 있다. 에크는 'apart'가 '분리, 괴리'의 뜻을 지녔음에 주목하여 생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간인 동시에 소외의 현장으로 아파트를 그려냈다.

세계 최고의 무용수들인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왈(주역무용수) 다섯 명을 포함하여 열네 명의 단원들이 고전 발레의 옷을 벗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선보인다.

TDK DVD

TDK TBDA0006

이탈리아 연주자들이 빈에서 바흐작품을 연주하다

연주 :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
지휘 : 지오바니 안토니니



라베크 자매의 열정적인 연주 압권!

이탈리아의 탁월한 고악기 합주단인 일 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로 듣는 바흐, 비발디의 협주곡들이다. 바흐의 <두 대의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 BWV1061>, <3대의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 BWV1063>, CPE바흐의 <심포니 G장조>,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RV242>를 담고 있다. 특별히 라베크 자매가 바흐의 작품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연주는 이 DVD를 아주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부록으로 담긴 <바흐의 자필악보에 대한 보존>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자료라서 이 아이템의 가치를 높인다. 2000년 4월 24일 빈 악우협회 대강당에서 있던 실황이다.

TDK DVUS-CLOPCAR

비제 : 카르멘

연주 : 빈 슈타츠오페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엘레나 오브라츠코바(카르멘), 플라치도 도밍고(돈호세), 유리 마주룩(에스카밀로), 쿠르트 라이들(주니가), 하인츠 제드닉(레멘다도)
지휘 : 카를로스 클라이버



제피렐리(연출)와 클라이버(지휘)가 만난 빈 슈타츠오페라의 기념비적 실황

2004년 7월, 독일 지휘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매니아 층의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영면했다. 남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구마다 천재적 광휘를 불어 넣었던 카를로스 클라이버! 그러나 클라이버는 녹음을 극도로 기피했기에 그 명성에 비하면 남긴 자료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기에 프랑코 제피렐리가 연출한 1978년 12월 빈 슈타츠오페라 실황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이 프로덕션은 이후에도 수없이 빈 슈타츠오페라 무대에 올려졌지만 그 어느 것도 클라이버의 첫 공연에 필적할 수 없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클라이버의 변칙이는 지휘도 대단하지만 무대 전체를 꽉 채우며 놀라운 생동감을 이끌어 낸 프랑코 제피렐리의 연출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엘레나 오브라츠코바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카르멘을 노래하며, 플라치도 도밍고(돈 호세)의 연기는 엄청난 감동으로 관객의 갈채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모든 면에서 소장가치 100%의 기념비적인 영상물!

TDK DVD

TDK DVUS-OPBOH

푸치니 : 라보엠

연주 : 스칼라 극장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크리스티나 갈라르도-도모스(미미), 마르첼로 알베레즈(로돌포), 홍혜경(무제타), 로베르토 세르빌(마르첼로)
지휘 : 브루노 바르톨레티



홍혜경이 무제타를 노래한 라 스칼라의 2003년 최신 실황

극사실주의적 연출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렐리는 1963년부터 <라보엠>을 연출했는데, 이 영상물에 수록된 2003년 2월의 라 스칼라 실황은 1981/82시즌의 메트로폴리탄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다. 작은 소품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무대는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이 오페라와 잘 어울리며 특히 눈 쌓인 3막의 정경은 가슴이 아리도록 감동적인 노래와 어우러져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제피렐리의 <라보엠>은 무제타 역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대표적 미미로 통하는 홍혜경이 굳이 무제타를 맡은 것은 그런 연유이다. 로돌포역의 마르첼로 알바레즈와 미미 역의 크리스티나 갈라르도-도모스는 남미 출신의 세계적 오페라 가수들이며 너무나도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전통적인 명반에 결코 못지않은 최고의 연주를 이끌어냈다.

라 스칼라 가극장이 보수 중인 시점이어서 첨단 시설의 아르침볼디 극장에서 공연된 것이며 스페셜 피쳐로 <라보엠>에 대한 제피렐리의 회상이 수록되었다.

TDK DVUS-CLOPDFM

요한 슈트라우스 : 오페라 <박쥐>

연주 :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베르트 바이클(아이젠슈타인), 루치아 포프(로잘린데), 에디타 그루베로바(아델레), 발터 베리(말케), 브리기테 파스벤더(오를로프스키)
지휘 : 테오도어 구슬바우어



이 영상물을 보기 전에 우선 그냥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라!

루치아 포프, 에디타 그루베로바, 브리기테 파스벤더, 발터 베리, 에리히 쿤츠, 그리고 지휘자가 테오도어 구슬바우어, 더 더군다나 무대 감독은 배우이기도 했던 그 유명한 오토 쉥크다. 또 악단은 빈 국립 오페라! <박쥐>의 상연이 매년 빈의 의식인 점을 생각해 보라. 1980년대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다 모인 정말 초호화 캐스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치아 포프가 맡은 로잘린데 역도 놀랍다. 그 독특한 분위기의 매력적인 부르주아 분위기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남겼다.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화려하게 빛나는 아델레 역할은 또 어떤가! 발터 베리의 그 오묘한 아이러니도 간과하기 어렵다. 16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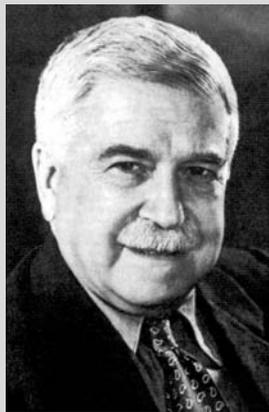
“그의 콘서트는 ‘성찬식’ 이었다”



Naxos Historical mono 8.110761
베토벤 : 피아노 작품집 제7권
 소나타 23번 '열정'
 26번 '고별' 외 22번, 24번, 25번

연주 : 아르투르 슈나벨(피아노)

슈나벨 애호가에게 최상의 선물!
 슈나벨의 이 음반에는 '열정', '고별' 소나타를 포함하여 피아노 소나타 22번, 24번, 25번을 싣고 있다. 그라모폰의 피아노 전문 필자 브라이스 모리슨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 자신만의 풍미와 웅변으로 신선하고 자연스런 연주를 들려주며, 변함없이 눈부시다.” 24번의 야릇한 서주는 엄청난 광채를 발하며, '열정' 소나타의 휘몰아치는 피날레는 원초적인 격렬함을 보여 준다”. 슈나벨의 연주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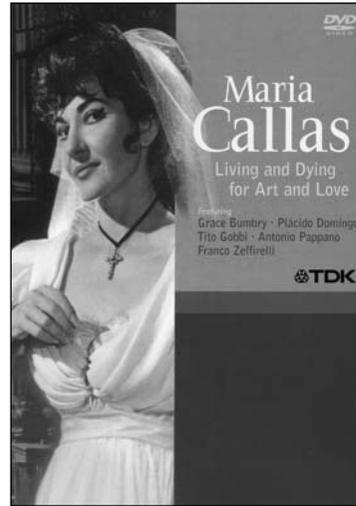
베토벤과 닮은, 엄숙한 피아니스트 슈나벨

미국의 저명한 음악비평가 헤럴드 손버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위대한 피아니스트들」에서 ‘베토벤을 창조한 사람 (The man who invented Beethoven)’이란 글을 통해 슈나벨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았다. “슈나벨은 키가 작고, 머리가 컸으며, 다부진 체구에 손가락은 뭉뚝했고 씨가를 즐겼다. 그는 피아니스트 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건반 위에서의 그는 인상적인 곳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어쩔 수 없이 쇼맨(showman)이 된다. 리스트 이래 피아니스트는 그랬었다. 대부분의

낭만주의 피아니스트들은 손을 높이 치켜들었고, 콧구멍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 나왔으며, 눈은 밝게 반짝였다. 그러면 청중들은 연거푸 큰 소리로 환호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슈나벨이 속해있는) 새로운 피아니스트 악파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슈나벨은 손을 높이 치켜드는 일이 없었고 머리를 흔들지도 않았으며, 콘서트 홀 꼭대기에 있는 신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연주하고 있으면, 객석에는 교회에서 느껴지는 엄숙한 고요가 흘렀다. 그의 연주회는 서커스 공연이 아니고 성찬식이었다. 그래서 청중이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정화된 느낌이었다.” 베토벤의 엄숙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슈나벨. 그는 실제로 베토벤을 잘 연주했고 당대 최고의 베토벤 연주자로 인정받았다. 슈나벨의 연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다.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살고 죽고

위대한 디바의 후반생에 대한 집중 조명



TDK DVUS-DOCMC

마리아 칼라스

그리스 출신의 영원한 전설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감동적인 영상물이다. 코벤티 가든에서 칼라스가 마지막으로 오페라 무대에 섰을 때의 역할이 바로 토스카였는데, 이 DVD는 바로 <토스카>의 1,2,3막을 뼈대로 하고 중간에 그리스의 선박재벌 오나시스와의 만남, <노르마>에 얽힌 영상, 그리고 그녀의 최후의 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조명을 하고 있다. 그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레이스 범브리를 위시하여 티토 곱비, 안토니오 파파노, 플라시도 도밍고, 프랑코 제피렐리 등 너무도 화려한데, 그들의 증언은 칼라스의 삶과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칼라스의 생애를 다룬 몇몇 영상물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에 속하는데, 특히 보너스 트랙에서 ‘예술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를 부르는 칼라스의 모습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마리아 칼라스의 후반생

이번 영상물을 이해하기 위해 마리아 칼라스의 후반생에 대해 간략히 스케치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1957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파티에서 메네기니와 칼라스 부부는 그리스의 선박 재벌 오나시스를 처음 만나게 된다. 1958년 1월엔 이탈리아 대통령이 참석했던 “노르마” 로마 공연에서 1막 이후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퇴장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으로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된다. 그해 5월엔 라 스칼라의 감독 기링젤리와 언쟁한 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다시는 라 스칼라에서 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11월엔 메트로폴리탄에서도 해고되었는데, 하지만 12월 19일 파리 공연에서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때 청중 속에 있던 오나시스가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듬해 6월 칼라스는 남편 메네기니와 함께 오나시스의 요트에 초대 받아 호사스런 여행을 한다. 하지만 항해가 끝나갈 무렵, 칼라스는 이미 오나시스의 연인이 되어있었으며 메네기니와의 결혼생활은 끝난다. 1960년부터 61년까지 칼라스는 무대에 서지 않고, 오나시스와 함께 화려한 상류생활을 즐긴다. 프랑코 제피렐리가 설득해서 칼라스는 1964년부터 코벤티 가든에서의 <토스카>를 시작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 당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전성기를 넘어서는 것이었지만 공연은 연거푸 대성공을 거둔다. 목소리의 한계를 느꼈지만, 칼라스는 의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1965년 6월 5일에 코벤티 가든에서 로열 갈라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이것이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마지막 공연이 된다. 은퇴 후 1966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고, 오나시스의 청혼도 거부하며 실연의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 1971년, 1972년에는 뉴욕 줄리어드 스쿨에서 일련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고, 친구이자 연인인 쥘세페 디 스테파노와 재회하지만, 1974년 11월 일본 사포로 공연을 끝으로 스테파노 및 무대와 작별을 고하게 된다. 그리고 1977년 9월 16일 54세의 나이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디바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외로이 숨을 거둔다.



이탈리아 거장 지휘자의 리허설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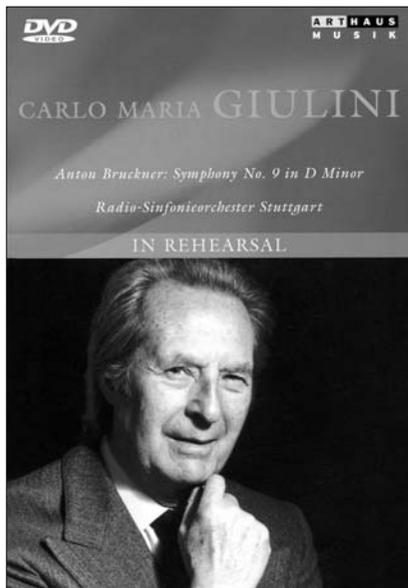
브루크너 교향곡 9번

DG에 명 녹음을 가지고 있지만, 줄리니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한 몇몇 해석가에 속한다. 이탈리아 거장 지휘자의 리허설과 콘서트.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 홀 양쪽에서 대성공을 거둔 위대한 이탈리아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완전히 해부, 분석한다. 줄리니의 음악을 들으면, 정교함과 세련성 외에 풍성한 현악기 텍스처와 파스한 서정이 정말 일품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리허설은 잘 보여준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휘자도 많지만, 줄리니는 파스한 눈빛과 자상한 제스처로 단원들을 이끄는 젠틀맨 지휘자다. 스스로도 음악가는 군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의도는 '강력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원들과 인간적 교감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멋진 외모에 깃든 온화함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정말 인자한 이탈리아 할아버지다. 브루크너 애호가들은 잘 알겠지만, 줄리니는 DG에 빈필과 위대한 9번 녹음을 남긴 바 있고 이 곡에 관한 한 최고의 해석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곱씹어 넘겨야 할 보약이다. 한 두 번 보고 마는 영상도 많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DVD가 바로 그것이다. 슈투트가르트 악단 앞에서 줄리니는 독일어로 리허설을 진행한다. 물론 그의 유창한 독일어는 영어자막으로도 나온다.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그는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의
가장 탁월한 해석가다.



Arthaus DVD 101 065

브루크너 : 교향곡 9번

연주 :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지휘 :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캐슬린 페리어 Kathleen Ferrier

-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의 비극적인 목소리

~눈물 닦을 준비 하세요~

영국의 아름답고 위대한 콘트라alto 가수 캐슬린 페리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으나 가정형편상 전화교환수로 일하다가 25살 때인 1937년 잉글랜드 북서부의 칼라일 페스티벌(Carlisle Festival)에서 피아니스트와 가수 부문 양쪽에서 1등상을 받고 용기를 얻어 음악경력을 쌓았다.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고, 뭔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그녀의 비극적 음성은 브루노 발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예민한 거장들의 귀와 가슴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하지만 앞길의 창창할 것 같던 그녀에게 불어 닦친 운명은 너무도 잔혹했다. 39세 때인 1951년 유방암의 증세를 보였고, 결국 1953년 가을, 랭커셔의 한 이름모를 낙엽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페리어가 이 세상에 있었던 시간은 41년, 그녀의 프로 가수로서의 경력은 1942년부터 따져도 1953년까지 겨우 10년 정도다.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노래를 남겨주고 떠났다.



K a t h l e e n F e r r i e r

Naxos 8.110029

말러 : 이 세상의 노래(대지의 노래)

연주 : 캐슬린 페리어(알토), 스페트 스반홀름(테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브루노 발터



말러의 영혼을 '알고 소리 냈던' 가수-페리어

말러가 타계하기 직전 썼던 이 세상과의 작별의 노래. 때에 따라 “반드시 이 연주 자여야만 한다.”는 옹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예는 바로 이

곡, 즉 ‘이 세상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다. 확실히 이 곡의 지휘자는 무조건 브루노 발터여야 하고, 알토 독창자는 무조건 캐슬린 페리어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말러의 이 곡의 가장 탁월한 명반이라면, 페리어가 타계하기 직전 빈 필과 남긴 녹음(Decca)이다. 본 녹음은 그보다는 조금 이른 1948년 1월 18일에 있는 미국 데뷔녹음으로, 카네기 홀 공연 실황이다. 이 아름다운 페리어의 음반이 나온 것을 보고, 데카의 명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페리어의 그 심오한 감동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지휘자 스토코프스키가 가슴이 벅차

어쩔 줄 몰라 했던 바로 그 연주회를 담은 이 음반을! 당시 실황을 어느 개인이 녹음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음반으로 만든 것이어서 약간의 잡음이 더 보태졌지만, 음악적 감동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중요한 고별 악장의 녹음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약간의 잡음은 비 오는 날 들으면서 빗소리와 섞이게 하면 될 것이다. 발터, 페리어 두 완벽한 콤비가 연출하는 그 깊고 깊은 영혼의 울림은 음질 좋은 수 십 가지 녹음들도 항상 부러워하는 세계이다. 늦가을의 소슬바람 같은 현악기의 흐느낌에 혼신의 힘으로 영혼의 노래를 수놓는 위대한 콘트라alto! 그 위대한 페리어의 음성을 나소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연주를 듣고 스토코프스키가 얻은 감동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눈물로 뒤범벅되어 그녀의 노래를 반주했던 브루노 발터의 말을 상기한다. “어떤 다른 음성도 나를 그렇게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목소리와 동시에 영혼을 지닌 가수였다. 페리어의 영혼은 말러 작품의 영혼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소리 내고 있었다.”

Naxos 8.111081

캐슬린 페리어가 부르는 영국 제도의 노래들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주요 섬들의 노래들을 담은 음반이다.

너무도 유명한 ‘Blow the wind southerly’, ‘오 왈리 왈리’, ‘고요한 한낮’을 포함한 많은 명곡들이 들어 있다. 이 아이템의 레퍼토

리들도 데카의 음반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페리어는 프로 경력동안 내내 독주회나 방송에서 영국 작곡가의 노래나 영국 민요를 불렀었다. 특별히 독성이 강한

휘테커(Whittaker, William Gillies 1876-1944)의 무반주 노래 ‘Blow the wind southerly’는 거의 그녀의 노래로 인식되기도 했다. 1951년 3월호 그라모폰지와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노래와 함께 ‘The Keel Row’를 특별히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펡킨가이드는 일찍이 그녀의 이런 노래를 ‘로제트 워너’로 꼽고 ‘영적인 신비’를 갖는 명연이라고 극찬했었다.

Naxos 8.110876

말러 :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교향곡 4번

연주 : 빈 필, 뉴욕 필
독창 : 캐슬린 페리어, 데시 할반(소프라노) 지휘 : 브루노 발터



EMI의 GROCE 음반으로도 나와 있지만, EMI가 말러의 음악 외에 퍼셀, 헨델, 글루크, 멘델스존 등 여러 작곡가들의 노래들을 담고 있는 반면, 이 나소스 음반은 말러의 교향곡 4번만을 커플로 맞이했다. 다만 교향곡 4번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페리어가 아니라 흘러간 시대 오스트리아의 화려한 콜로라투라 가수 젤마 쿠르츠(Selma Kurz)의 딸인 소프라노 데시 할반(Desi Halban)이다. 어머니의 유전적 혜택을 부족하게 받았던 그녀는 별로 예쁘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 교향곡 녹음에 참가했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의 지휘는 여전히 톱클래스이고, 음반 값이 페리어의 노래에만 지불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턱 없이 약소하다.

Naxos 8.111009

브람스 : 알토 랩소디/네 개의 엄숙한 노래, 슈만 : 여인의 사랑과 생애

연주 : 캐슬린 페리어(알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클레멘스 크라우스



캐슬린 페리어의 이 음반 역시 하나의 보물이다. 특유의 비극적 목소리로 브람스 음악의 고통과 우울함을 감동적으로 노래한 ‘알토 랩소디’는 생전에 페리어 스스로도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녹음이라고 전해진다. 브람스 노래로는 ‘알토 랩소디’ 외에 ‘사포체의 송가’, ‘소식’, 그리고 ‘비올라 오블리가토가 있는 두 개의 콘트라alto 노래’까지 있고 있다.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LP시절부터 유명했던 그 녹음이다. 물론 데카 음원이며 이미 데카에서 발매되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 음반이 특별한 것은 데카 음반과는 달리 거장 마크 오버트-손의 손으로 다시 리마스터링 했기 때문에 음향이 놀랍도록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그 믿기 어려운 음질만으로도 이미 데카 반을 가지고 있는 애호가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Naxos 8.110871

말러 : 이 세상의 노래(대지의 노래), 뢰케르트 가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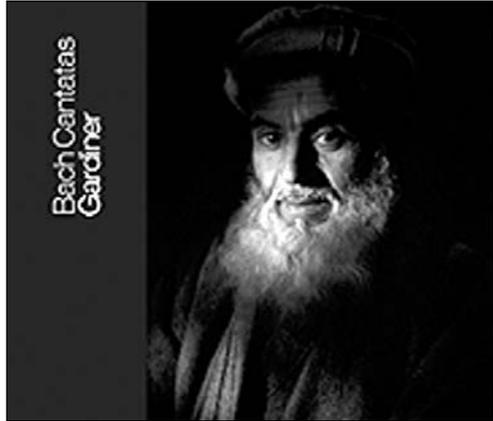
연주 : 캐슬린 페리어/줄리아스 파차크(테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 브루노 발터



낙소스의 능력은 위대하다. 데카의 그 유명한 음원을 가져와 마크 오버트-손의 손으로 깨끗하게 다듬어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까지 마련해주었다. ‘이 세상의 노래’, ‘뢰케르트 가곡’ 모두 1952년 5월의 데카 음원 바로 그것이다. 이 불후의 음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라! 말러의 가장 위대한 가곡인 뢰케르트 가곡 세 편을 포함하고 있으니 만족에 만족을 더한 셈이다.

바흐 서거 250주년 기념

칸타타 순례여행의 결실



칸타타 1집 : 런던
7번, 20번, 30번, 39번, 75번, 167번

Soli Deo Gloria SDG101

Gillian Keith, Joanne Lunn(sops)
Wilkete Brummelstroete(contr)
Paul Agnew(ten)
Dietrich Henschel(bass)
Monteverdi Choir/English Baroque Soloists
John Eliot Gardiner



칸타타 8집 : 브레멘/산티아고
8번, 27번, 51번, 95번, 99번, 100번, 138번, 161번)

Soli Deo Gloria SDG104

Katharine Fuge, Malin Hartelius(sops)
William Towers, Robin Tyson(countertens)
James Gilchrist, Mark Padmore(tens)
Thomas Guthrie, Peter Harvey(bases)
Monteverdi Choir/English Baroque Soloists
John Eliot Gardiner

존 엘리엇 가드너의 바흐 칸타타 순례여행의 결실
드디어 최고급 음반으로 출시되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거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씩 계획했을 것이다.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종교음악 지휘자 중의 한사람인 존 엘리엇 가드너도 새천년에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다. 그것은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축일용 칸타타 전곡을 연주한

일이었다. 가드너는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을 이끌고 영국 및 유럽 각지에서 바흐 칸타타 전곡을 연주하며 2000년 한 해를 보냈다. 2000년, 바꿔 말해 바흐 서거 250주년의 해에 한 일이 그것이라니, 가드너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뜻 깊은 새천년을 보낸 음악가 중의 한사람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가드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칸타타를 지휘했던 2000년 현장의 생생한 기록들이 마침

내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우선 이 뜻 깊은 음원들이 이제까지 가드너의 소속 음반사인 도이체 그라모폰의 아르히프(Archiv)가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Soli Deo Gloria;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란 뜻. 이하 SDG로 표기)'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이 'SDG'는 앞으로 진행될 자신의 여러 녹음들을 담을 목적으로 가드너가 새로 설립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생경한 느낌이 들지만, 그의 음악적 배경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레이블의 발전 가능성에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된다.

그라모폰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

가드너는 우선 1집과 8집 두 장의 음반을 먼저 내놓았다. 각 세트는 음반 두 장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음반들은 양장본 책처럼 고급스럽고 멋지게 제작된 특수 케이스에 담겼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지에 충실을 기했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물론 번역도 완벽하게 실었고, 무엇보다도 연주 여행 때 썼던 글에 기초해서 만든 가드너 자신의 해박한 지식의 내지 해설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선물이다. 그라모폰 2005년 3월호는 두 음반세트 중 제 1집 '런던' (7번, 20번, 30번, 39번, 75번, 167번을 담고 있음)을 '이달의 음반'으로 뽑고 극찬을 한 바 있는데, 그 칭찬은 거의 입을 거품을 문 상태였다. "시중 일관 높은 수준의 해석이다. 탁월한 대목이 너무 많으며, 실망스런 해석은 거의 없다. CD를 처음 받았을 때 특히 잘 알려진 부분을 골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 많았다. <칸타타 30번> 콘트랄토 아리아에서 빌케테 브루멜슈트뢰테가 완벽한 균형으로 구사한 감칠 맛 나는 싱크로페이션 그리고 마술적인 섬세함을 보여준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의 우아한 연주는 너무도 아름다워 듣고 또 듣고 했다. <칸타타 167번>의 마지막 합창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합창과 관현악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가드너의 솜씨는 일종의 계시처럼 느껴진다." 또 다른 세트(브레멘, 산티아고)에 대해서도 찬탄은 이어졌다. "〈칸타타 8번〉의 첫 합창부분에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쾌함이 돋보이고 그것은 거의 천상의 춤처럼 느껴진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의 예술성은 아주 특별하다. 그는 달콤하고 공명이 좋은 음색을 끝까지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는데, 심지어 도약과 맹렬한 전진이 요구



되는 95번 칸타타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준다. 이 곡이 그런 통찰력으로 노래되는 것을 전에는 들어본 적 없다."

다른 모든 칸타타 전집들이 부러워하다

바흐의 칸타타 분야라면 가드너 앞에 쟁쟁한 경쟁자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톤 코프만, 마사야키 스즈키의 뛰어난 명연주들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명실 공히 우리 시대 최고의 종교음악 지휘자 존 엘리엇 가드너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드너는 앞에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모두 취하고 그것을 더하고 일어나 더 많은 장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라모폰의 필자는 사려 깊고 잘 연마된 접근 방식에서 스즈키를 닮았지만, 가드너의 녹음이 조금 더 따스하게 들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연주 관행에 대한 가장 멋진 본보기인 투명함과 나긋나긋함을 잘 보여주며, 코프만의 사이클에는 없는 긴 호흡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가드너의 손을 번쩍 들 어줬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가드너 음반이 재킷 사진으로 쓰고 있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베스트 사진 100'의 커버 '아프간 소녀'로 더욱 유명해진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Steve McCurry)의 작품이다. 이 아름다운 예술 사진들이 표지라는 것도 격을 달리하는 대목이다. 물론 예술사진은 바흐의 음악을 듣는데 커다란 상상력을 키워준다.

<http://monteverdiproductions.co.uk/sdg.asp>